

한빛원전 핵폐기물 저장용량 3.6배 초과

1~6호기 저장고 최초 설계기준 모두 넘겨 '위험한 보관' 안전대책 없이 기존 수조에 모아 2024년까지 사용 연장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준위 핵폐기물(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폐연료봉) 처리에 대한 근본 해법을 미루면서 영광 한빛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에 애초 설계 용량을 넘어선 폐연료봉이 위험천만하게 쌓이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6월7·8·10일자 1·6면>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올랐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경험한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자로의 핵연료보다 임시시설(발전소 물탱크)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더 큰 위험요소라는 점을 주목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2050년대 중반까지 핵폐기장 한 곳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버티고 있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부특위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6년 8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한빛 1호기 사용후핵연

료 임시 저장용량이 최초 589다발에서 6월 말 기준 2105다발로 3.6배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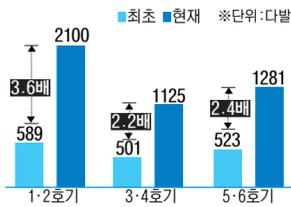
1987년 6월 가동에 들어간 한빛 2호기도 최초 저장용량은 589다발이었지만 현재 2100다발로 3.6배 증가했다. 저장용량이 한빛 3·4호기는 2.2배(501다발→1125다발), 5·6호기는 2.4배(523다발→1281다발)로 늘어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빛 1~6호기 내 임시 저장고에는 각각 1583다발, 1076다발, 935다발, 950다발, 643다발, 644다발이 저장 중이며 이는 모두 애초 설계 기준치를 넘어선 양이다.

고준위 핵폐기물로 불리는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내 격납용기(돔 모형)처럼 밀폐되고 방호벽이 잘 갖춰진 곳이 아닌, 보조건물 안의 가로 21.6~10.4m, 세로 8.0~8.5m, 수심 12m의 수조(물탱크)에 냉각펌프 2대에 의지해 쌓이고 있다.

애초 2019년이면 가득 찰 예정이었으나 수조 규모는 그대로 둔 채 별도의 시설을

■영광한빛원전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현황 (2016. 6. 30 기준)



추가해 2024년까지 저장가능하도록 저장 밀도를 높였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사고가 난 후쿠시마 1~4호기 원전에서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의 양(1496다발)과 비슷한 규모의 폐연료봉이 발전소 1개의 수조 안에 수십 년째 임시 저장 중이어서 그 자체로 우선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연재해나 기기결함 등으로 발전소 전원이 끊기거나 냉각펌프 작동이 멈출 경우 수조 안에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가 녹아내리지 않도록 할 대비책 또한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호기자 khh@

한수원은 그러나 기술 검토를 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저장밀도를 높였고, 테러 대비책의 경우 가능성이 낮은 자체 판단에 따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최초 계획된 용량을 이미 넘어섰는데,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대책도 없으면서 저장용량만 무리하게 늘리고 있다”며 “화장실 없는 건물로 비유되는 원전을 과학적이고 정밀한 계획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그 위험성을 떠안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수백명의 기술진을 보유하고 원전 규제를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해서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가동되는 원전 특성을 항시 유념하며 노후화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안전관리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부지 내에 단기저장시설을 외부 부지를 선정해 중간·영구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6:37 해질 16:14
달출 18:00 달짐 02:56

완연한 가을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구름많음	12/22
목포	구름많음	13/22
여수	구름많음	15/21
나주	구름많음	9/23
완도	구름많음	14/22
구례	구름많음	9/22
강진	구름많음	12/23
해남	구름많음	11/22
장성	구름많음	9/22

지역	날씨	기온(°C)
보성	구름많음	10/22
순천	구름많음	13/23
영광	구름많음	10/22
진도	구름많음	11/22
진주	구름많음	10/21
군산	구름많음	10/21
남원	구름많음	8/22
속산도	구름많음	15/19

지역	날씨	기온(°C)
서울	구름	12/22
대전	구름	12/22
대구	구름	12/22
부산	구름	12/22
제주	구름	12/22

시간	오전	오후
서해	북~북동 0.5~1.0	북~북동 0.5
남부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북동~동 1.0~1.5	북동~동 0.5~1.0
서부	북동~동 1.0~1.5	북동~동 1.0~2.0

시간	간조	만조
목포	05:05	11:37
	17:14	--:--
여수	00:47	06:46
	12:43	19:17

기간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날씨	☀	☀	☁	☀	☀	☀	☀
날짜	12/26	11/26	15/19	16/23	13/23	11/23	21/24

생활지수: 식중독(관심), 자외선(보통), 미세먼지(보통)

인터넷 게임중 욕했다간 '모욕죄 댕'

광주 20대 합의금 타내려 욕설 유도...중·고생까지 100건 고소

광주의 한 대학생이 인터넷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다며 최근 1년 동안 중·고등학교 등 100여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의 의도성이 보인다'며 일부 사건을 각하 결정하기도 했지만, 60여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이며 중·고등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의도적으로 욕설을 유발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씨의 법률 대리인이 지난 8월28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상에서 욕설을 한 네티즌 6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와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들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며 게임화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내가 어디에 사는 누구다'라고 밝혔음에도 60여명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A씨가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100여건 넘게 했다는 점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여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등 특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을 각하처리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과 주소지 등을 밝힌 뒤에도 게임상에서

욕설을 들었다며 추가 고소를 진행해오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월 A씨가 고소한 모욕죄 사건 3건에 대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욕설을 유도한 뒤 고소했다'며 각하 처리하기도 했다. A씨가 모욕죄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인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각하 처리 이후에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동부경찰에 무더기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부경찰은 '대량 고소 사건은 피의자 관할지에 이첩하라'는 본청 지침에 따라 A씨가 지난 8월 접수한 6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각 경찰서에 이첩 중이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도성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불기소처분 할 수 있지만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모욕죄의 경우 대부분 합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검에 따르면 접수된 '모욕죄'는 2010년 520건에서 2011년 636건, 2012년 811건, 2013년 976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 늘다가 2014년부터 급증해 1324건, 지난해 1709건을 기록했다. 올 6월 말까지는 830건이 접수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화분 만들며 자연의 소중함 깨닫기

12일 광주시 북구 삼각초등학교 학생들이 삼각동 사회적기업인 '래인플라워'에서 열린 생태·문화 돌래길 탐방 프로그램에 참가해 허브 화분을 만들고 있다. 삼각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린이들에게 마을 자원의 소중함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현역의원 2명 회계책임자 불구속 기소

4·13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4·13총선에서 당선된 송기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과 손금주 국회의원(나주·화순)의 회계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환)는 12일 국민의당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당 손 의원의 회계책임자 서모(5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2명은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

만원을 제공하고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 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의 회계책임자 서씨는 총선에서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2084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이들 모두 선관위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 초과 지출 또는 회계 보고 누락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북구청-공무원 노조 성과급 갈등 일단락

노조의 '성과상여금(성과급) 재분배'와 구청의 '성과급 지급 유보'로 50여일 넘게 대립해온 광주 북구와 북구 공무원 노조가 합의점을 찾았다.

12일 북구와 북구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직원들에게 반납받아 보관한 6~7월 분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주고, 북구는 지급을 유보했던 8~9월 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직원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이 없도록 해줄 것과 '노노갈등'에 대한 구청의 사과를 요구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노동조합의 판단을 존중하며 구청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노조의 성과급 반납투쟁에 참여했던 북구 직원 80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 관계자는 "반납했던 성과급을 다시 개별적으로 되돌려받게 되고, 실제 재분배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제2016-00592호(반) (2016.09.2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06호(2016.09.20)

창립 34주년 특판 300억 한도

(한도소진시 조기 마감)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1년 복리정기예금 2.40%

(연이율, 월복리, 세전이율, 만기이자지급)

부동산담보대출!! 신축자금대출!! 할인어음!!

더블저축은행 본점 (062)223-5506

구도청1, 충장파출소, 광주세무서, 국민은행, NC WAVE, 더블저축은행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